

도내 의대교수들 “정부 의대정원 확대 반대”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반대해 전북에서도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신청에 이어 반대 움직임이 교수진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북대 의대교수들은 7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필수의료 문제는 단순한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 장기간 외면되고 방치되어 온 기형적인 의료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대학 입학 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과대학 정원의 줄소 증원이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의과대학 현장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으로 인한, 의과대학 학생과

전북대·원광대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 ‘반대성명’ 발표 전북대 의대 3주 등 휴강 형태 개강 연기… 학사일정 차질

전공의들의 이탈, 그리고 의학교육과 진료 현장의 파행을 조장한 정부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이어 “생명을 다루는 의학교육은 강의실, 책상, 의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의과대학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어떠한 준비도 없이 줄소 증원으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2018년 지역 의과대학 폐교와 편입 사태 때와 같은 아픈 경험을 다시 겪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적 퇴보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를 적극 지지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총장은 의과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증원 규모 제출에 대한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증원 신청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원광대학교 의대교수들도 반대입장을 냈다. 원광대의과대학·원광대학교병원·산본원광대학교병원도 성명을 내고 “모든 교수 일동은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과 휴학계를 제출한 의

대생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항후 정당한 주장을 하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에게 어떠한 피해라도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재 수도권 위주의 의료 집중과 필수과에 대한 홀대는 필수과에 대한 지원 없이 자유경쟁체계에만 필수요리를 맡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지방의료의 붕괴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미비해 소아청소년과의 오픈런, 중증 환자의 적절한 치료 지연 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3058명의 의대 정원을 갑작스럽게 2000명 추가한다는 발표는 현장에서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전공의와 대학학장단에서 질 높은 의료인을 배출하기에는 불가능함을 이미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등록금 확충에 눈이 먼 대학 당국과 총장에 의해 일방적으

로 진행됐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전북대학교는 98명의 의대정원 확대를 신청했다. 현재 전북대 의대정원은 142명이다. 98명의 정원이 확대될 경우 총 240명의 의대정원을 확보하게 된다.

원광대학교의 경우도 93명 증원을 신청했다. 현 93명 정원에 100% 추가 정원을 신청한 셈이다.

이에 반발해 원광대의 경우 의과대학 등 5명의 교수가 보직사임을 했다. 전북 의대생 1142명 중 1099명은 휴학계를 냈다. 학교별로는 전북대 669명 중 646명, 원광대 473명 중 45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대 의대의 경우 3주간, 원광대 의대의 경우 1주간 휴강 형태로 개강을 연기했다. /뉴스

전북교육인권센터, 온라인 심리검사 누리집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과 진료, 법률자문 및 온라인 심리검사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온라인 심리검사 누리집을 구축, 기존 저경력 교사 대상으로 실시하던 심리검사를 분청 소속 전체 교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엔 새로 구축된 온라인 심리검사 누리집에는 표준화된 심리검사 5종(ESS 스트레스 검사·PAI 성격검사·K-IMP 한국형 대인관계 검사·CST 성격강점검사·TBI 교사 심리소진검사)을 제공하고, 검사 실시 전 자가진단을 통해 내면의 불편감 수준을 확인한 후 희망하는 심리검사 2종을 선택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검사 결과 소진도가 높거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교원은 누리집을 통해 교원치유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김명철 센터장은 “온라인 심리검사 등 교육활동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교원의 자기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미래인재 양성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독서인문교육 진행 테마별 학급도서 프로그램 등 독서 생활화 기반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책 읽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 활동으로 학생의 삶과 밀착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 독서생활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먼저 테마별 학급도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학급단위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학교 단위로 확대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독서인문교육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업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선정된 전북 초·중·고등학교 추천도서 100권을 중심으로 우수사례집을 제작·배부하고, 연수를 통해 책 읽는 학교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독서인문교육강화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초·중고 교사의 신청을 받아 30명 내외로 구성되는 현장지원단은 독서인문교육 정책개발 및 교원 역량강화 연수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독서·인문교육 지역별 네트워크 및 컨설팅 지원 △한학기한권 읽기 등 교과 및 비교과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지원 △전북형 독서·인문교육 정책과제 지원 △주요 핵심과제 추진 지원 등이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독서 경험을 제공해 책 읽는 학교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지역·학교급별 현장 교사들의 실천 사례를 통한 지속가능한 독서인문교육 실천으로 독서·인문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는 지난 6일 본교를 방문한 몽골법집행대학교 대표단과 글로벌 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은 박노준 총장(사건가운데)과 몽골법집행대학교 관계자들이 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 방안 모색

우석대, 몽골법집행대와... '글로벌30' 진입 계획 힘 모아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지난 6일 본교를 방문한 몽골법집행대학교 대표단과 글로벌 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앞서 양 대학은 2022년 학술 및 인적 교류 등에 대한 국제교류를 시작으로

이듬해 경찰행정학과·소방방재학과·정보보안학과의 2+2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1934년 개교한 몽골법집행대학교는 몽골 법무부 소속 교육기관으로 법 집행 요원의 훈련을 전담하는 공립 고등

교육기관이다.

특히 대표단은 우석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 사업 진입 계획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박노준 총장은 “우리 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 계획에 몽골법집행대학교의 협력과 지원은 큰 힘을 될 것”이라며 “양 대학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한편 적극적으로 협력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독자적 AI 재배 환경 알고리즘 개발

전북대 스마트팜학과 '일용직 새싹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 '최우수'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 '최우수'

전북대학교 스마트팜학과 학생들이 구성된 일용직 새싹팀(팀장 석승원, 4년)이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3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총 상금 1억 원 규모로 전국에서 104개 팀, 510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간 예선과 본선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1차 예선으로 머신러닝 학습을 통한 최적의 토마토 생육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정확도를 평가하는 AI 해커톤을, 2차 예선에서는 'AI 재배환경 알고리즘 개발 방안 및 재배전략'이라는 주제로 한 발표표고를 통해 자웅을 겨뤘다.

이에 1차 예선 상위 12개 팀 중 최종 3팀이 본선에 진출, 본선에서는 평창에 소재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원장 김경재)이 유리를 활용해 원격으로 토마토를 재배했다.

본선에 오른 팀별로 독자적인 AI 재배환경 알고리즘을 개발해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한 토마토 재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토마토 실증 재배를 진행

해 생산량과 에너지 사용량, 그리고 개발한 AI 모델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대팀은 스마트팜학과 학부생들과 창업농민팀(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이 한 팀을 이뤄 우수한 AI 재배환경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실증재배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태곤 스마트팜학과장은 “대학뿐 아니라 다수의 정부출연 전문기관에서도 참여한 대회에서 스마트팜학과 1기 학생들과 지역 창업농의 협력을 통한 성과가 단연 돋보였다”며 “전국 최초로 스마트팜학과를 신설한 전북대와 농생명수도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력을 보여준 성공모델로 평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팀을 이끈 석승원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으나 학과 교수님들의 열정적 지도와 지원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스마트팜 분야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더 특별한 고교생활 길라잡이, 메타버스로

전북자치도교육청, '이로운 메타스쿨' 구축... 고교학점제 등 종합·체계적으로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더 특별한 고교생활 길라잡이 '이로운 메타스쿨'(<https://zep.us/joedu>)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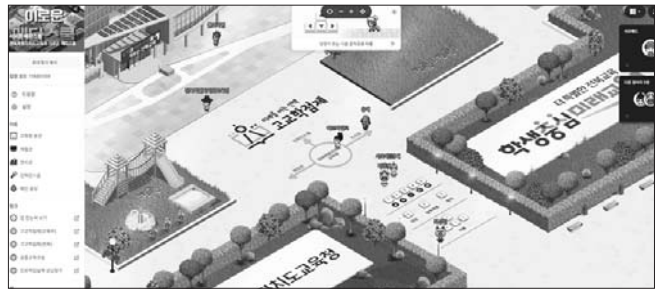
이는 고교학점제와 진로·학업 설계를 비롯해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상현실을 활용한 플랫폼이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본관, 전시관, 체험관, 컨퍼런스홀로 구성된 학생, 학부모, 교사의 고교학점제 이해도를 높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진로·학업 설계 등 고교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형 콘텐츠를 메타버스 안에 담아낸 것이다.

먼저 본관에서는 고교학점제 정책홍보 자료를 비롯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등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21종의 콘텐츠를 7개의 소규모 공간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과 대외 연계 공동교육과정 등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어 체험관은 진로·학업 설계를 위한 20개의 콘텐츠를 자기 이해·직업 세계 이해·진로·학업설계·상담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구축한 '이로운 메타스쿨'

시뮬레이션·대입진학'의 5단계로 구성된 진로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MBTI 성격유형검사, 직업 흥미검사 등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교과목소개, 계열별 진로, 학과 안내 등의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한옥을 본떠 디자인한 전시관은 도내 고등학교의 교육활동과 교육과정 등 각각의 학교가 지닌 특색과 주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컨퍼런스홀은 대·중·소회의실을 마련해 교육청 행사 및 연수, 단위 학교 진로박람회 등을 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했다.

이와 함께 '이로운 메타스쿨'은 고교

학점제 이해를 위한 가상공간 역할 뿐만 아니라 중3, 고1 대상 진로·학업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상담 코너도 마련돼 있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 선택을 안내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창구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로운 메타스쿨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권역별 교육과정 박람회도 이로운 메타스쿨을 활용해 개최하는 등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덕진구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전주시장 표창 받아

전북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전주 덕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노정옥)가 전주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센터는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전주시 덕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개소해 덕진구 내 영양사 교육 의무가 없는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급식소의 급식관리 수준 향상 및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위생·안전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 조리사, 원장, 교사 등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및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해 학부모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노정옥 센터장은 “전북대학교와 전주시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어린이 급식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재활운동 기반 장애인 필라테스 교육 진행

전주기전대학 작업치료과는 지난 6일 학교기업 JK힐링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활운동 기반의 장애인 필라테스를 교육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기업 JK힐링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필라테스 수업 운영을 통해 장애인 개인의 인지기능 및 신체운동기능들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현재 전주기전대학 작업치료과는 2024년부터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재활운동을 기반으로 시작된 필라테스 접근법을 활용해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노인, 치매 환자들을 위한 재활이 이뤄진다.

장애인 필라테스 프로그램으로 전주기전대학 작업치료과 교수 2명, 필라테스 강사 2명이 프로그램마다 투입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